# Ⅷ. 참 고 자 료

1. 2018년도 시정연설문

2.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3. 2018년도 예산의 目 구분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 시 정 연 설

2017년 11월 22일
제269회 도의회 정례회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 김성근 부의장님 이정동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269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의 도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는 '생활자치'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주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9대 도의회와 함께 민선 6기 도정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들과 함께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정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동분서주 해왔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민선 6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새해 도정**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이제 불과 79일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2011년 유치를 시작으로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 도정은 올림픽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해 도가 담당한 역할을 잘 완수했습니다.

문화 올림픽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150여 개의 공연 전시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의 우수한 상품들과 농수축산물, 음식을 선보이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관 정비도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러, 교통, 산불, 폭설, 전염병, 위생을 비롯한 안전 대책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를 중심으로 한 흥행, 북한의 참가, 개폐막식장의 추위, 경기장의 사후 활용, 숙박에서 발생하는 일부 바가지요금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먼저 입장권 판매는 흥행의 성패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중요 사안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앞장서고 그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다소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는 상대적으로 원활한 편이나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의 판매량을 늘리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참가도 안보 안전에 대한 담보인 동시에 흥행의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에 그동안 중단됐던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대화의 통로를 열어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고자 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신 바 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고 반드시 그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폐막식장의 추위도 해결이 만만치 않은 사안입니다. 지난 4일에 있었던 G-100일 콘서트에서 이 추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동시에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위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들의 사후 활용 문제도 올림픽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도 그리고 경기 연맹들 더 나아가 민간 기업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주체들이 비용 분담을 해서 국가 대표들의 훈련장으로 쓸 시설은 훈련장으로 쓰고, 상업적으로 쓸 시설은 민간에 이양해서 절충점을 찾는 정책적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숙박 가격의 문제는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 개최지의 숙박 예약률은 35% 정도입니다. 예약률을 높이면서 가격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국내·외 홍보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대회 기간 중 에는 우리 도를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내년 올림픽 홍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11월 1일에 성화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내년 1월 21일에는 이 성화가 철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을 돌아서 2월 9일에 개회식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각 시군에서 열릴 성화 봉송 문화 축제에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올림픽 개최지의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는 고립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도로-철도-항만-공항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다음 달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간 철도와 지난 6월에 완공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로 영동에서 영서까지 30분, 서울에서 동해안까지는 1시간 30분대에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초항은 대형 크루즈 항만으로, 양양 공항은 747이 뜨고 내릴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교통망의 확충은 본격적인 변화의 토대에 불과합니다.  이 교통수단들을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로 채우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크루즈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크루즈 부두를 16만 톤 급으로, 또 2020년에는 22만 톤 급 초대형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BS항로 여객을 올해 5만 명에서 내년에는 6만 명으로 늘리고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겠습니다.

2014년에 중단된 백두산 항로는 다시 운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공항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만큼 활성화되지 못해 도민들은 물론 의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메르스와 사드 사태로 막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취항지역을 올해 3개 나라 7개 노선에서 내년에는 8개 나라 20개 노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국 운항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 외의 아시아 지역으로도 여러 개의 노선을 열겠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양양공항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오가는 국내선을 202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원주공항은 1일 2회 운항으로 증편하고 버스노선도 개설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교통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제2 경춘 국도, 춘천~철원 고속도로와 제천~삼척 고속도로, 강릉~제진 철도도 의원님들, 도민들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올림픽 이후, 신 강원을 열어가는 해입니다. 올림픽 이후 강원도는 이전의 강원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강원도가 될 것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도정 전반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신 강원의 4개의 새로운 방향을 정했습니다. 신 관광, 신 농정, 신 산업, 신 산림이 그것입니다. 이 4가지가 지향하는 목표는 국제화, 글로벌화입니

다. 우리 강원도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품질화, 스마트화, 브랜드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新 관광” 입니다.**

신 관광은 지금까지의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국내 관광 중심에서 국제 관광으로, 또 자연을 즐기는 관광에서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관광으로,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또 성수기 관광에서 4계절 관광으로, 아날로그 관광에서 모바일 관광으로, 저부가 가치 관광에서 고부가 가치 관광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관광 산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개최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8개 시군 전체의 관광 산업의 도약을 내년부터 폭넓게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아시안게임, 군인 올림픽, 유니버시아드와 같은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신 관광의 추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新 농업” 입니다.**

신 농업의 목표도 역시 국제화, 글로벌화입니다. 농업의 발전은 선진국 진입의 필수 조건입니다.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농업은 매우 유망한 미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은 아직 우리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비싸게 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관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 고품질화, 스마트화, 브랜드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축산업 또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살충제나 구제역, AI로부터 자

유로운 동물 복지형 축산을 누구보다 앞서서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합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지형이 양식 어업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육상 기술이나 첨단 기술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연어와 명태의 양식을 늘리고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질적 도약을 이루면서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 전국 1위로 올라서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新 산업” 입니다.**

우리 도는 2차, 3차 산업의 불모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으로 앞질러 가는 것입니다.

탄소 산업, 수소 산업, K-cloud와 빅 데이터, 전기 자동차, ICT,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첨단 사업들입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지만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고급 두뇌를 확보하는 것이 사활적 관건입니다. 아직 우리 도에는 고급 인력을 유치해서 R&D를 해 나갈 인프라, 자본과 네트워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작게 시작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첨단 산업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전기자동차(e-mobility)와 탄소 자원화 사업을 비롯한 몇몇 사업은 이미 발진이 된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新 산림” 입니다.**

우리 도는 82%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이 산들이 도민들의 삶과는 유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산림 정책은 접근과 이용을 막는 것이 유일한 정책입니다. 그 결과 도의 모든 산은 경제성이 없는 잡목으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민과 괴리된 산림은 예를 들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 산림을 관리하는 자주적 시스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도민의 삶과 함께 하는 산림, 99% 보존과 1%의 확실한 이용, 보존과 이용을 동시에 늘리는 정책’을 모토로 도민이 중심이 되고 소득과 연계된 선진국형 산림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역량을 더 키우고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출범한 강원 경제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국내외 역량을 키우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들이 60%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은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고용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33,000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공제와 일자리 보조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복지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예산은 2013년에 처음 1조 원을 넘긴 이래 계속 늘려 올해 1조 2,213억 원, 내년에는 1조 5,0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6,744억 원**으로 3년 연속 당초 예산안이 5조 원을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022년 까지 채무를 완전히 없애는 계획을 차질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평창올림픽과 철도사업, 새 정부 복지 사업의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늘어 올해보다 130억 원이 증가한 **4조 3,50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이 소폭 늘어남에 따라 올해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3,7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의 채권 발행 수입의 증가 등으로 92억 원이 늘어난 **9,466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림픽의 성공과 일자리,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 일자리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수요는 올림픽 이후의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과 복지 재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4조 3,370억 원 보다 0.3% 늘어난 **4조 3,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 중소기업과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에 전체 예산의 25.4%인 1조 1,032억 원
-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에 51.5%인 2조 2,400억 원
- 안전과 공공질서 분야에 3.4.%인 1,479억 원
- 인건비와 행정운영,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19.7%인 8,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3,754억 원 보다 0.6% 늘어난 **3,778억 원입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433억 원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473억 원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6억 원
-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8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올해 9,374억 원 보다 1% 늘어난 **9,466억 원입니다.**

- 중소기업육성에 1,332억 원, 비축무연탄관리 887억 원, 재해구호기금 217억 원을 비롯해 13개 통합관리 기금에 3,5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개별기금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에 486억 원, 지역개발기금에 5,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올림픽을 역사상 최고의 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도민들의 마지막 열정이 필요합니다. 김동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이 국민 통합, 민족 통합을 이루는 대축제 그리고 우리 강원도를 세계인에게 각인시키는 지구촌 축제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원도 발전과 올림픽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강원도지사 최 문 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제269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11. 30.)

**존경하는 이 정 동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올림픽을 비롯한 도정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 시설 국비지원 종료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이 감소하였으나, 내국세 증가, 올림픽 효과, 춘천~속초, 경강선 철도사업 등 SOC 추진의 영향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증가하여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방안전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입이 감소하여 줄어들었으나, 학교용지부담금과 의료급여는 국비 등의 증가로 전반적으로는 예산규모가 금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일자리, 올림픽 이후를 대비하는 미래먹거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기존 부채도 빠르게 상환하여 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5조 6,498억 원 보다 0.4%(246억 원) 증가한 5조 6,74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조 3,5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778억 원, 도 자체 운용기금은 9,4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올림픽,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추진, 경강선 개통 등에  따른 주변 기대 심리로 부동산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취득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1조 816억 원으로 금년 보다 4.4%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의존수입**은 동계올림픽 시설 투자 마무리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줄었으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늘어나 금년보다 0.5% 증가한 3조 1,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928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

회계 **전입금**에 609억 원을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내용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2.6%인 9,822억 원으로 금년 보다 10.2%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반직·소방직·수습 공무원 인원 증가와 공무직 호봉 승급,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6.7%인 3조 3,379억 원으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등 도정현안 투자는 늘었으나, 동계올림픽 시설관련 국비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중앙지원 사업이 금년보다 다소 줄어 △0.9%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채무상환** 규모는 0.7%인 299억 원으로 조기상환과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 등이 감소되어, 금년 781억 원 보다 △48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도정 핵심 과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 올림픽 참여관중 방한용품 지원, 시내버스 무료운행 손실 보상,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 운영, 올림픽 국내외 홍보 등에 **450억 원**을 투자하여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마무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올림픽 이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4개 분야에 5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강원도형 마이스(MICE) 유치,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 등 **신 관광 분야에 233억 원**

◆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사과 명품과원 조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명태산업 광역특구 육성 등 **신 농업 분야에 47억 원**

◆ 강원도형 수소생산 사업, 4차 산업혁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탄소 포럼,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전기자동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국제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신 산업 분야에 257억 원**

◆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 고품질 아이스 와인용 산지재배 시험 등 **신 산림 분야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튼실한 강원경제 구축과 민생안정을 위해**

◆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일자리 공제 지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에 1,2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군 단위 LPG 배관망 설치,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강원 상품권, 지방도 확포장 등 **도민 생활경제 안정에 4,52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 국외본부 구축 운영,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추진,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 옥계지구 개발 등 **글로벌 강원 경제 구축에 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강원 문화·관광·체육의 명품화·세계화를 위해**

◆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강원FC 운영 지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도민체육대회 지원, 도 산하 체육단체 지원 등에 **1,9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전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 아동수당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증축,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등 **저출산 대책 사업에 537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 폐지 줍는 노인 안전장비 지급, 치매안심센터 운영, 경로당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65세이상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등 **고령화 대책 사업에 5,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누리과정 보육료,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장애인 연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청소년 시설 확충,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체감복지 실현에 7,6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잘사는 농산어촌 건설을 위해**

◆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농촌 테마공원 조성,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산불예방 이·통장 앰프 지원, 연안침식 방지,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에 **7,2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 정비, 지방도 방호울타리 개선, 하천재해예방 사업 등 **안전 분야에 1,64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 소방청사 증·개축, 노후 소방차량 보강, 119 구급차량 보강,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노후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소방 분야에 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성 경비는 소방안전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방안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3,778억 원**으로 금년 보다 24**억 원**(0.3%)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354억 원) 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433억 원** 규모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입 재원으로 시·군 징수교부금에 3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430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방안전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960억 원) 보다 154억 원이 감소한 **806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0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재원으로 소방서 신축, 노후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79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7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2,356억 원) 보다 117억 원이 증가한 **2,473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2,473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진료비 예탁금, 위탁·심사 수수료 등에 2,447억 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26억 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83억 원) 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66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기후변화 대책 추진 등에 6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기금은 총 15개 기금이 되겠으며, **기금 수입·지출계획 총괄 규모는 1조 3,775억 원**으로 금년(1조 1,593억 원) 보다 2,182억 원(18.8%)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28억 원, 융자금 회수 997억 원, 예치금 회수 9,374억 원, 차입금 1,500억 원, 이자 수입 102억 원, 기타 수입 1,672억 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9,466억 원, 비융자성 사업 1,795억 원, 융자성 사업 1,098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415억 원 등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말(9,374억원) 보다 1% 증가한 9,46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올림픽 성공 개최와 미래 먹거리 발굴 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민생예산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부채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여 **「올림픽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재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2018년도 예산안」과「사업설명자료」,「기금운용계획안」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정 동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편성한 필수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새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송 석 두**

# 3. 2018년도 예산의 目 구분

| 코 드 | 과 목 | 코 드 | 과 목 | 코 드 | 과 목 |
|---|---|---|---|---|---|
| 101-01 | 보수 | 302-01 | 민간인 이주보상금 | 402-02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101-02 | 기타직보수 | 302-02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402-03 | 민간대행사업비 |
| 101-03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303-01 | 포상금 | 403-01 | 자치단체자본보조 |
| 101-04 | 기간제근로자보수 | 303-02 | 성과상여금 | 403-02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
| 201-01 | 사무관리비 | 304-01 | 연금부담금 | 403-03 |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 201-02 | 공공운영비 | 304-02 | 국민건강보험금 | 404-01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201-03 | 행사운영비 | 304-03 | 의원상해부담금 | 405-01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 201-04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305-01 | 배상금등 | 405-02 | 도서구입비 |
| 201-05 | 공립대학 운영비 | 306-01 | 출연금 | 406-01 | 기타자본이전 |
| 202-01 | 국내여비 | 307-01 | 의료 및 구료비 | 407-01 | 국외자본이전 |
| 202-02 | 월액여비 | 307-02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501-01 | 민간융자금 |
| 202-03 | 국외업무여비 | 307-03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501-02 |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 202-04 | 국제화여비 | 307-04 | 민간행사사업보조금 | 501-03 | 공사·공단 등 융자금 |
| 202-05 | 공무원 교육여비 | 307-05 | 민간위탁금 | 501-04 | 시・군・구 융자금 |
| 203-01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307-06 | 보험금 | 502-01 | 출자금 |
| 203-02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307-07 | 연금지급금 | 601-01 |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
| 203-0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07-08 | 이차보전금 | 601-02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
| 203-0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307-09 | 운수업계보조금 | 601-03 |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
| 204-01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307-10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601-04 |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
| 204-02 | 직급보조비 | 307-11 | 사회복지사업보조 | 601-05 | 기타 국내차입금원금 상환 |
| 204-03 | 특정업무경비 | 308-01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601-06 | 차관상환 |
| 205-01 | 의정활동비 | 308-02 | 징수교부금 | 601-07 | 기타해외채무 상환 |
| 205-02 | 월정수당 | 308-03 | 자치구 조정교부금 | 602-01 | 예치금 |
| 205-03 | 의원국내여비 | 308-04 | 시・군 조정교부금 | 701-01 | 기타회계전출금 |
| 205-04 | 의원국외여비 | 308-05 |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 701-02 |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
| 205-05 | 의정운영공통경비 | 308-06 |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 | 701-03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
| 205-06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308-07 | 자치단체 간 부담금 | 702-01 | 기금전출금 |
| 205-07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 308-08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703-01 | 법정전출금 |
| 205-08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 308-09 |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 | 703-02 | 비법정전출금 |
| 205-09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308-10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 704-01 | 예탁금 |
| 206-01 | 재료비 | 308-11 | 기타부담금 | 705-01 | 예수금원금 상환 |
| 207-01 | 연구용역비 | 309-01 |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 705-02 | 예수금이자 상환 |
| 207-02 | 전산개발비 | 309-02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 705-03 |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
| 207-03 | 시험연구비 | 310-01 | 국외경상이전 | 705-04 |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
| 301-01 | 사회보장적수혜금 | 310-02 | 국제부담금 | 706-01 | 감가상각비 |
| 301-02 | 장학금 및 학자금 | 311-01 |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 706-02 | 당기순이익 |
| 301-03 | 의용소방대지원경비 | 311-02 |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 706-03 | 적립금 |
| 301-04 |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 311-03 |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 801-01 | 일반예비비 |
| 301-05 | 통·리·반장활동보상금 | 311-04 |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 801-02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 301-06 | 민간인 국외여비 | 311-05 |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 801-03 | 내부유보금 |
| 301-07 | 외빈초청여비 | 401-01 | 시설비 | 802-01 | 국고보조금 반환금 |
| 301-08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401-02 | 감리비 | 802-02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 301-09 | 행사실비 보상금 | 401-03 | 시설부대비 | 802-03 | 과오납금 등 |
| 301-10 |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 401-04 | 행사관련시설비 | 802-04 | 잡손금 |
| 301-11 | 기타 보상금 | 402-01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 |

# 2018년도 예산개요

/ 만든 사람들

| | |
|---|---|
| 예산과장 | 박 동 주 |
| 예산담당 | 박 형 철 |
| 지방행정주사 | 김 진 성 |
| 지방전산주사 | 김 은 경 |
| 지방행정주사 | 김 보 현 |
| 지방행정주사 | 김 영 규 |
| 지방행정주사보 | 권 효 섭 |
| 지방행정주사보 | 위 충 성 |
| 지방행정주사보 | 이 미 란 |
| 지방행정주사보 | 김 예 용 |
| 지방행정서기보 | 김 서 희 |

/ 市·郡 참여

| | | | |
|---|---|---|---|
| 춘천시 | 신현우(250-3174) | 원주시 | 박영준(737-2152) |
| 강릉시 | 김현태(640-5704) | 동해시 | 홍선아(530-8520) |
| 태백시 | 문동민(550-2368) | 속초시 | 박상현(639-2115) |
| 삼척시 | 남백림(570-3216) | 홍천군 | 박재억(430-2032) |
| 횡성군 | 정세환(340-2182) | 영월군 | 강준기(370-2893) |
| 평창군 | 최성열(330-2215) | 정선군 | 전영표(560-2229) |
| 철원군 | 심경미(450-4566) | 화천군 | 김성복(440-2242) |
| 양구군 | 조혜경(480-2212) | 인제군 | 기미숙(460-2012) |
| 고성군 | 박기수(680-3217) | 양양군 | 손수연(670-2212) |

---

☞ 문의사항 : 강원도청 예산과(249-4167) 및 시군 예산계

본문 내용 중 단위조정(천원, 백만원, 억원)으로 인하여 상관계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본 자료는 도청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